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행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적과 병 고침이고(1-10 장)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와의 정면 대립이다(11-16 장). 후반부에는 기적과 병 고침 이야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마가복음의 신학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멀리 지방에 위치한 갈릴리가 당시 로마제국의 피지배지역을 대표한다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식민지 하에서 지배체제를 상징한다.

예수는 처음부터 지배체제와의 충돌 속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한다. 갈릴리 회당에서 지배체제 권세와의 일련의 대립(1-3 장)은 예수가 물러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계기가 되고(4 장), 제자들의 몰이해 속에서도 예수의 귀신축출, 병 고침과 가르침은 계속된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예수는 성전에서 권세 잡은 자와 연이어 마주친다(11-12 장). 예수의 종말론적 담화(13 장)는 성전체제의 붕괴를 암시하고, 그의 수난과 죽음을 향한 저항은 제자들이 모두 도망함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듯 보인다(14-15 장).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 전반부가 바디매오의 눈 뜬 사건을 통해 예수를 길에서 쫓는 것과 같이(10:52), 후반부에도 여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를 끝까지 쫓는다(15:39-41).

예루살렘 입성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흔히들 ‘승리의 입성’(triumphal entry)이라고 말하지만, 그 규모로 보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축하하는 개선식과는 거리가 멀다. 본문의 장면은 군대 사열과 같이 웅장하고 질서를 갖춘 개선장군의 입성이 아니다. 군인들이 아닌 농민들, 잘 훈련된 말 대신 처음 타보는 나귀 새끼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편의 코메디요 조크다. 비꼬는 행위다. 예수와 제자들은 무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위험천만하다.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꾸었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입성은 최소한 역사적 다윗 솔로몬의 왕권-성전 체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12:35-37)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11:9)는 시편에서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좌에 오르는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시 118:25). 여기서 ‘주’(κύριος)는 히브리어 야훼(יהוה)를 번역한 말로, 예수는 ‘주’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누가 묻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11:3)에서 ‘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서적 언어로 모든 일이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뜻이다. 혹은 주를 단순히 ‘주인’(owner)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2:28; 12:9). 예수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 예수가 스스로를 ‘주’라고 불렀으니,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결론은 시기상조다.

호산나(ὡσαννά)는 히브리어 ‘호쉬아 나’(הוֹשִׁיעָה נָא)를 음역한 것으로, “구하소서”라는 말이다. 시편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하느님에게 기도하지만, 이 말은 또 억울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쓰인다. 왕은 최고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구하소서”다.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다(삼하 14:4 왕하 6:26). 바디매오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았듯 군중들 역시 예수가 다윗 왕조를 이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찬미는 전통적인 구조 속에서의 행동일 뿐이다. 체제 자체의 변혁이라기 보다 기존 체제 속에서 지도자만 바뀔 뿐이다.

스가라의 예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슥 9:9)과 감람산(슥 14:4)은 최후 심판에서 메시아의 등장을 알린다. 이는 유대 전통에서 다윗 왕조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본문의 구성은 시편과 스가라 예언과 맞물려 마지막 때 메시아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재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문을 열어 환영해 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막 11:9; 시 118:26). 제사장이 메시아로 오는 왕을 맞는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은 힘 없는 농민들이다. 체제 속의 인물이 아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의 걸옷을 땅에 깔고 새로운 왕을 외칠 때에는 현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왕하 9:13). 예루살렘 입성은 이만큼 정치적 의미를 담는다. 한 마디로 혁명이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서지만, 아무도 그를 맞지 않는다. 예수가 성전을 둘러 보고 나간다. 그것으로 상황 끝이다. 처음 방문하는 성전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예수는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할 일을 세 번이나 말해왔듯(8:31; 9:31; 10:32-34), 이어지는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산된 행동이다.

성전 개혁인가 타파인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특유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쓰여있다. 전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치하고(12-14, 20-25), 가운데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15-19). 하나는 제자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이야기는 이렇게 맞물려, 각각의 뜻을 밝히는 해석학적 열쇠로 작용한다.

이야기는 예수가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열매가 없자 예수는 무화과 나무에 대고 저주를 내린다. 그리고 생똥맞게 저자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밝힌다. 예수가 무화과를 저주한 행동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때에 무화과를 찾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린다면 예수의 행동은 더더욱 변호하기 어려워진다. 예수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예수의 성격이 괴팍하다는 결론만 나올 뿐이다. 왜 제자들은 가만 있는데 예수만 홀로 배가 고팠을까? 그리고 굳이 배를 채울 요량이었다면, 떡을 부풀려 수 천명을 배불리 먹인 이가 자신의 허기 하나 채우지 못했을까? 여기서 굶주림과 무화과는 무엇인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무화과는 종종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한다. 예레미야 24 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며,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에 그리고 유대 땅에 남은 백성을 나쁜 무화과에 비유했다.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에 비유했다(호 9:10). 이사야는 포도원 비유에서 하느님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평과 의로움’을 기대했지만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고발하며,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다(사 5:1-7). 이렇게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가 지도자들이 갖출 덕목으로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면, 그 열매를 애타게 바리는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비유할 수 있다. 예수가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구한 것은, 무화과로 비유된 이스라엘 사람들—더 정확히는 제사장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정의를 기대한다는 말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마 5:6). 마태복음의 ‘주림’과 마가복음의 ‘시장함’은 모두 같은 단어(πεινάω)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표현은 겉 모양만 그럴 듯 하고 내용이 없다는 뜻이다. 성전의 겉모습에 감탄한 제자들(13:1-2)과는 달리 예수는 그것의 알맹이, 열매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멀리서 무성한 잎사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살핀 까닭이고(11:13), 무화과 비유 사이에 배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둘러 본 이유다(11:11). 여기서 열매가 없음이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님을 뜻한다.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이루어 질 것이란 말 속에는, 예수가 무화과와 성전을 함께 보고 있음을 증거한다. 13 장에서 예수는 성전의 붕괴를 보다 분명하게 예고한다.

예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는다. 여기에 쓰인 내쫓다(ἐκβάλλω)는 말은 더러운 영을 내 보낼 때 쓴 말이다. 당시 성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매가 허용되었다. 돈 바꾸는 이는 성전 방문자들에게 성전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바꾸어 성전세(temple tax)를 내도록 했고, 비둘기 파는 이는 흠 없는 희생제물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러운 기업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제사장(기업인)들은 은행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다. 특별히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린 양을 바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레 5:7).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성전은 매매를 통해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예수가 모든 상행위를 금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성전체제 유지를 위해 제사장들은 자체 경찰력을 동원했고(14:43) 또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절기 때 마다 훔칠지 모를 민란에 대비해 항시 감시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의 행동은 눈에 떨 수 밖에 없고 곧바로 제재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예수의 행위는 일종의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prophetic symbolic acts)다. 예수의 시대와 마가 공동체의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시대에는 성전이 번듯이 서 있었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 무대였지만, 70년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를 살았던 마가 공동체에게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과거의 역사다. 그들은 물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과 하느님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뚜렷한 표징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로마의 지배체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체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부패한 체제였기 때문에 사라져야만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공동체 스스로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한다. 도둑의 소굴(렘 7:11)이 된 성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유명한 성전설교에 기초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4).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마가복음은 또한 성전을 희생 제사와 맞물려 해석하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긴다.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전의 존립 목적이었다면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임시 방편으로서 성전이 아니라, 스스로 성전이 되어 항상 능동적으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이해다.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11:22). 우리 말 성경은 하나 같이 “하느님을 믿으라”로 번역하지만 본문은 “하느님의 믿음”을 강조한다. 지배체제의 가치관과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번역본들이 새로운 번역과 이해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학적 입장 때문이다. 신학적 논쟁이 될만한 구절로 “예수의 믿음”을 들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해다(롬 3:22; 갈 2:16; 3:22). 예수를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생각하면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지만(전통적 해석), 본문은 예수의 믿음을 본보기로 세운다. 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용법이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생각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성전체제’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다.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가 던진 말이다. 하느님이 머문다고 믿는 성전에는 더 이상 하느님도, 하느님의 믿음도 없다. 그 하느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말이다. 문자적으로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가진 이는 없다. 더욱이 아무 산이나 다 옮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다. ‘이 산’이 성전과 함께 바다에 빠진다고 말한 것은 앞에 5장에서 군대 귀신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연상시킨다. 곧 로마의 지배체제가 함몰됨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체제 또한 붕괴되고 사라짐을 뜻한다. 산과 같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 지배체제를 하느님의 믿음으로 이긴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여겨라. 기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떼쓰는 행위가 아니다. 하느님의 믿음을 내 안에 구체화하는 마음 가짐이다. 기도의 마침은 응답을 기다림에 있지 않고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로 드러난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희생제물)와 화합(화목제물)이 아닌가? 성전이 사라진 지금 서로가 성전으로서 행할 주된 역할은 서로 용서함이다.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빛)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빛)을 용서해 주소서.

권세, 그 출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모두 어떤 판단의 잣대가 있다.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하는가? 성서는 이것을 권위(authority)라고 본다. 예수의 가르침 역시 권위에 근거한다(1:27).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믿음’이다. 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권위로 삼는다. 그 권위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가 서기관이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의 행위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의 항변을 받는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예수의 행동을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뒤에 보다 더 큰 힘과 세력이 있는지 묻는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 잣대로 누가 더 큰가를 저울질한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권세를 말하고 있다. 예수는 그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권세에 따르는 가르침이다(1:27).

예수의 반응이 재미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인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는지 되묻는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하늘로부터, 곧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면 그것을 지켜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 권위에 따르지 않으니 문제시된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 말하자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우물쭈물한다. 마치 법정에서 검찰관/변호인이 증인을 상대로 묻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증인이 모르겠다고 하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I have no further questions). 증인의 대답 속에 결과가 이미 나왔다. 모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1:5), 유독 유대 지도자들—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증거한다. 성전체제가 무너져야 하는 이유다.

생각해 보기

1. ‘하느님의 믿음’을 통해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2.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은?